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씌시다 (1테살 5,8)



알렐루야, 알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 기쁨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바라며 특별히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 부활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어둠을 뚫고 부활하신 거룩한 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스스로 빛이 되시어 죄와 죽음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세상을 비추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누구보다도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가득 내리시길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부활하신 주님의 빛과 은총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수난과 죽음으로 어둠과 혼란에 쌓여있었듯이 현재 우리 사회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빛으로 오시어 어둠을 이기고 혼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전해줍니다. 제자들의 배반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